

주님 부활 대축일

대구주보

ARCHDIOCESE OF DAEGU WEEKLY BULLETIN

2026.04

05

[가해] 제2531호

▼ 부활하신 예수, 『윤보 김기창, 성화 11경(景) 특별전』(5. 17.(일)까지, 교구청 본관 2층 로비)



소리주보
QR코드

†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보라, 내가 모든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 21,5)

사랑하는 우리 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가르시고, 생명으로 죽음을 넘어오신 주님의 부활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오늘 교회가 노래하는 이 기쁨은 단지 한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경이로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느님께서 오래도록 약속하신 마지막 시대의 구원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길고도 지난했던 인간의 역사, 그 안에 쌓여 온 허물과 결핍, 상처와 눈물, 죄와 단절의 시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응답이 부활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인간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은 하느님의 사랑이 마침내 인간의 흠결과 실패보다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역사 안에서 서로를 아프게 했던 수많은 갈등과 대립, 상처와 슬픔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상처 없는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 못 자국이 남아 있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이 끝내 패배하지 않았다는 생명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고, 아직 화해하지 못한 기억이 있으며, 오래된 오해와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깊은 대립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더욱 날카롭게 갈라졌고, 극단의 언어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6월의 지방선거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 편을 갈라 적개심을 키우는 비겁함이 아니라, 진실 안에서 화해를 모색하고 정의 위에서 공동선을 세우려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의 시대 속에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화해와 일치는 진실을 희생하여 얻는 값싼 평화여서 안됩니다. 정의 없는 화해는 오래가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한 일치는 결국 더 큰 균열을 남깁니다. 우리는 극단적 분열을 부추기는 왜곡된 정보와 거짓의 언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뜨거운 열심만으로 복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교회의 정통 신앙을 자기 확신과 만족의 도구로 바꾸는 그릇된 신심들에도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신앙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무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이웃을 살리는 길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사변적 교리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불의에 침묵하지 않을 때,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상처 입은 이들의 곁에 머물 때, 부활은 오늘도 살아 움직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이 세상 안에서 숨 쉬게 하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향한 작은 결단, 진실을 붙드는 양심, 서로를 사람으로 존중하려는 인내, 그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걸으시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을 축하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시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거짓이 흔드는 곳에 진실이, 증오가 자라는 곳에 사랑과 정의가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본당에서, 일터와 사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말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현실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굴곡진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생명이 번져 가고, 사랑과 정의가 필요한 곳마다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더욱 담대하고 따뜻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참된 평화와 희망을 가득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6년 주님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큰 사랑의 타대오

전례 들여다보기

전례 동작의 의미 : 일어섬

교구 문화홍보국 차장 배재영 안토니오 신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난과 죽음을 건너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루카 24,36) 일어서 있는 것은 부활의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세례를 통해 이 신비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요한 19,25)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치절한 순간에도 결코 도망치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뢰로 곁에서 있는 성모님의 모습은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이런 의미들은 전례 안으로 들어와 신앙 안에서 확고히 서 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특히 말씀의 전례 중에 복음을 봉독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일어서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서 서서 경청하겠다는 것입니다.(루카 4,16 참조)

또한 서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이의 자세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마르 11,25)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루카 18,13)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서서 양팔을 들고 기도했는데 이는 카타콤바의 벽화 “기도하는 사람”(Orans)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요컨대 사제가 입당할 때부터 본기도를 할 때까지, 신앙고백부터 보편지향기도를 할 때까지, 또 성찬례 때 일어서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와 함께 기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밖에도 서 있는 것은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물론 오래 서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리가 아파 앉고 싶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 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보며 전례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성모당 낙성과 축복식

10월 13일(일)

소생한 팡파르의 연주와 매우 명상적이면서도 대단히 열성적인 거대한 군중과 함께 이상적인 날씨 덕분에, 봉헌 동굴의 낙성식이 더할 수 없이 성공적이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영광과 감사.

예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아침에 대성당에서 천명가량이 영성체를 했다. 9시에 팡파르가 울리자 주교가 흰색의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광장을 강복하면서 통과했다. 성가대가 '미제레레'(Miserere)를 노래하는 동안 장엄과 성수와, 동굴의 안팎을 강복했다. 중백의 차림의 성직자단 중 대부분은 바위 아래 자리를 했다. 이 장엄한 강복이 있는 후 주교가



제의를 착용하는 동안 신학생들이 라틴어로 루르드의 아베 마리아를 불렀다. 주교미사가 동굴 제대에서 성대하게 거행 되었다. 부주교가 신부 복사를 하고, 신학생 2명이 부제, 차부제 역할을 했다. 주교가 주교좌로 돌아와 제의를 벗는 동안 한 한국인 사제가 '발현의 역사'(성무일도서 중 2월 11일 제2의 밤기도 독서들을 번역한 것)를 요약하면서 1911년의 서약을 상기시키고, 순례지를 공포하면서 조선 남방의 모든 교우들에게 동굴에 찾아올 것을 권면하는 사목서한을 대중 앞에서 낭독했다. 이어 주교 의식서에 따른 성모상의 장엄한 강복이 있었고, 동굴 제대에서 루르드의 찬가(讚歌)와 '테 데움'(Te Deum)이 불리는 가운데 장엄 성체강복이 거행되었다. ...퇴장 때는 팡파르의 연주와 함께 장엄한 퇴장이 있었다. 광장은 하루 종일 성모께 공경을 드리는 교우들로 가득 차 있었다.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이런 순서의 공동기도가 있었다. 루르드 아베 마리아의 한국어 노래, 목주신공, 주교의 강론, 성모덕서도문의 한국어 노래. 또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는 일본인 교우들의 공동기도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루르드 아베 마리아의 일본어 노래, 목주 신공, 일본인 본당 신부의 강론, 일본어로 된 성모덕서도문. 6시 30분에는 동굴과 광장에 조명이 되었고, 선교사들과 신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팡파르가 울렸다. 여기에는 교우들도 많이 참석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수많은 교우들도 이 모임에 참석했다. 주교가 우선 1911년의 서약서를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다시 읽고, 이 서약서의 실현에 대해 의사록(議事錄)을 읽었다. 주교에 이어 세 부의 의사록(議事錄)에 모든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부들이 서명한 다음, 한 부는 서약의 문서와 함께 한국인이 만든 대리석 상자에 주교의 인장으로 봉인(封印) 해 넣었고, 당가 신부가 올라가서 그것을 성모상의 발밑 바위에 놓았다. 동시에 그는 바위 밑에 전쟁 십자가가 들어 있는 메달과 다음 문구가 새겨져 있는 상이군인의 휘장을 걸어 놓았다. "1915년 9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상파뉴(Champagne)에서 1918년 10월 13일, 대구. 교황 파견 선교사 샤를르 페네."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의 양식을 따른 이 경당(經堂)은 루르드의 아베 마리아와 '마니피캣'을 노래하는 성직자단과 신학생들의 방문을 받았다. 팡파르의 마지막 한 곡으로 이 모든 것이 막을 내렸다.

파스카 성야

제1독서 [창세 1,1-2,2]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창세 22,1-18]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화답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3독서 [탈출 14,15-15,17]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 들어갔다.>

화답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제4독서 [이사 54,5-14]

<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기신다.>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5독서 [이사 55,1-11]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화답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제6독서 [바룩 3,9-15.32-4,4]

<주님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화답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7독서 [에제 36,16-17.18-28]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화답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서간 [로마 6,3-11]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마태 28,1-10]

<예수님께서는 되살아나셨고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것입니다.>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

입당송

저는 다시 살아나,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0,34-37.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 습니다.>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 워하세.

제2독서 [콜로 3,1-4]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부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 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요한 20,1-9]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간 교구 일정

	선종 사제	미사 안내	교구 행사
4 05(일)			2027 청년대회와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의 날, 10:30 상인성당
06(월)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00 월성성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00 성동성당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00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1:00 죽도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9:30 꾸르실료 교육관	
07(화)	서정길 요한 대주교 (1987년 4월 7일 선종)		
08(수)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평화성당	58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3주차, 19:00 압량성당
09(목)	이윤걸 토마스 신부 (2000년 4월 9일 선종)		기초공동체위원회 회의, 11:00 교구청 본관 3층 사목국 회의실
10(금)	신순균 바오로 신부 (1948년 4월 10일 선종)		임신부 축복미사, 10:00 교구청 본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480

▷ 오늘은 '4월 세계청년대회와 젊은이를 위한 기도의 날' 입니다.

미사 전 또는 후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를 바쳐주세요. 세계청년대회와 젊은이를 위한 4월 미사 지향은 **"젊은이의 성장에 동반하는 모든 이를 위하여"**입니다. ※ 보편지향 기도시 참고하세요.

『 젊은이의 성장에 동반하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젊은이들의 신앙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지혜와 용기를 얻어 봉사의 고단함 속에서도 보람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참된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젊은이들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운동 **20,284,960**단 (2026.3.27. 기준)

수도회 | 피정 알림

효령하늘집 "나도 가보자~"

침묵과 관상의 개인 피정
면담과 치유 / 소그룹 피정(Pr)
미사: 주일 11:00, 수요 치유미사 16:00
문의: (054)382-0091

제주 '푸른꿈 제주섬' 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섬, 순례, 말씀초대
기간: 4.11~13 / 4.28~30 / 5.23~25
장소: 성이시돌피정의집 / 주최: 한통사
대상: 개인, 가족, 단체, 본당 구반장
문의: (010)9670-9775 / (010)7200-4567

M.S.M. 체나콜로 대구 대피정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
일시: 5.2(토) 9:30~16:30

장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앞산)

강사: 서덕교 신부, 오창수 신부

문의: (010)9366-9170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제주 산들평화순례 피정

제주순례: 5.15~17 / 6.19~21 / 7.3~5 / 7.10~12 / 7.17~19

추자도순례: 5.4~6 / 6.4~7 / 6.8~11 / 9.4~7 / 9.11~14

문의: 면형의집, (064)732-4702

자연과 함께하는 '엠마오의 길'

사제, 수도자 피정

기간: 7.13~22(9박 10일) / 80만원

장소: 제주도 엠마오연수원

피정지도: 최승정 신부

문의: 엠마오연수원, (010)6462-0410

일반 | 기타 알림

통합 심리 영성 프로그램 (비대면 모임)

첫모임: 4.14(화) 20:00 / 총 6회
(매월 둘째 화요일) / 대상: 청년
문의: 토타포교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010)5816-8480

바오로딸 저자 특강

일정: 4.18(토) 15:00~16:30
주제: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
강사: 김영선 수녀 (저자/성서신학박사)
신청: (010)6681-5185 / 무료, 선착순 마감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기도모임

둘째, 넷째, 금요일 20:30~21:30
대상: 20~40세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 **교구 | 대리구 알림**

교구청 휴무

교구청은 4.6(월) 쉽니다.

4월 임신부 축복미사

일시: 4.10(금) 10:00~12:00

장소: 교구청 본관

대상: 임신부 (매월 참석 가능)

진행: 기도 모임 및 축복 미사

신청(필수):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서다정(에스터), 박동수(시메온)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서양화, 가야금 성가, 수요목객, 피아노, 성인 모래놀이치료, 발성법, 제대꽃꽂이, 캘리그래피, 합창교실, 성가반주 오르간, 자아성장 & 마음 미술치료, 가곡과 성가,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IM뱅크 143-05-000-837-8

연말정산문의: 650-3529

전인병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전문재활병원
국가건강검진(내과전문의 2인 진료)

문의: 1688-7667 (9:00~17:30)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내과

문의: 320-2171

새빛학교 학생 모집

과목: 국어, 영어

(단계별 학습, 주 2회)

문의: 새빛학교, 476-3100(교대역)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823-1970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4월 6일(월) ~ 4월 11일(토) 6:50, 16:50, 23:50 김준영(하상바로) 신부

신차구매 문의
국산차 · 수입차
구매 방식 상담 가능
장기렌트 리스 할부 일시불
☎ 053-710-5737 ☎ 010-5556-5737
대표 김무경 (세렌자 요한)
(주)MKINC

Since 1963
가톨릭피부과의원
63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습진 / 무좀 / 아토피 / 건선 / 탈모 / 레이저 시술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 053) 320-2000

척추 · 어깨 · 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로) 하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산부인과/가정의학과/비비인후과/치과
건강검진센터 | 응급실 24시간 운영
진료 예약 및 문의 | ☎ 053) 320-2500

복현연합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 검진(5대암)
위·대장 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료기관 선정
전문 의·약·박사 | 최희만(레오), 어서우(D.안드레아)
북현오거리 신안은행 옆 건물 2-5층 T. 053 943 9380

관절 중점 진료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5번 출구

데레사C
스테인드글라스
찾아가는 원데이클래스
• 각종 단체 · 주일학교 · 청년회 특강
• 스테인드글라스, 모자이크, 글라스아트
대표 조우경(테레사)
010.9387.0100 남산동 신학교 정문 맞은편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LG전자 (주)윈디
LG 시스템에어컨 공식전문점
아파트 · 상가 · 병원 · 공장 · 공공기관
설계 · 견적 · 시공 · 사후관리
대표 모재석(루카) 김지영(로사)
1533-2545

안과수술전문 / 드림렌즈 / 건조증레이저
심청안과
원장/전문 의 심지훈(토마스)
이병희(테오필로)
☎ (053)572-4200 명문약국 4층
내당동 대구N타워 4층(내당역 1번 출구)

조제전문
세계로약국
상담전화 053 652 1122
이윤수(라파엘) / 이소담(마리아)
대구카톨릭대학병원 정문 앞

병·의원 마케팅
N 상위노출·플레이스·광고심의
알아서다 해드립니다
디딤애드 1544-4080
김남영(에스텔)

중고차 매입, 수출 문의
KGLOBAL
타시던 차 매입합니다
www.kglobal2025.com
오창훈 토마스아퀴나스
M.010-9982-1463

서울아산내과
대표원장/전문 의 박현진(사도요한)
** 일요일·365일 진료 **
CT검진 |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 초음파 | 만성질환관리
신애역 5번출구 하나은행 2층 ☎ 792-8275

대구연세안과
실크스마일
레이저 백내장 수술
대표원장 박중원(소시모)
의학박사(현 연세대 외래교수)
문의전화 626-8881~5